2004년 7월 7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과 면담

시간 : 2004년 7월 7일 오전 10시
장소 : 필리핀 한국대사관
참석 : 배한진(대사관 경제담당 서기관), 윤석영(까비떼 한국투자협회장), 이창호(까비떼 한국투자협회 총무이사)
엔지오 참가 : 모경순, 정귀순, 김민정, 이귀보, 정국희, 이영아, 이지연, 임성희, 최미경, 이상아, 마크

배한진 서기관 : - 필리핀 경제상황 설명
- 필리핀 인력해외 송출제도(2004년 7월 7일 현재)

(아래는 배한진 서기관의 설명 내용 정리)
1) 이주 노동관련
① 현황
- 지난 4년간 861,000명을 사우디, 홍콩, 일본, UAE, 대만, 쿠웨이트 등 109개국에 파견
= ILO의 모델국가로 선정
- 각종 통제 및 지원제도
· 출국 : E-Card System, OWWA 보험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이민국 통제
· 근무 : Labor Attache, 행정제재(블랙리스트 등재),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에 의한 계약조건 강제
· 귀국 : 48시간 귀국지원, 비상 귀국프로그램, 국내적응프로그램

② 송출기관
- 1,327개의 송출기관이 매년 평균 300명을 송출
- 송출기관 허가기준
· 근거 : Labor Code, Migrant Workers Act of 1995, POEA rules & reg.

· 대표는 필리핀인(대졸, 3년 이상 업계종사)으로 최소 $36,363 자본금 및 1백만 페소 보증금 예치 필요
· 기간 및 통제 : 4년, 조사, 제재 등

③ 송출 수수료
- 한달치 월급+서류비용 5,000~7,000페소(기술테스트, 신체검사, 건강보험, 여권, 신원조회 등)

2) 까비떼 한국기업 현황
-까비떼 : 전체 250여개 중 120여개 한국기업
-칼람바 : 삼성(전기/전자)
-바탄 : 신발 / 가방
⇒ 필리핀 전체 300여개

- 정귀순 : 기업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회사 내 노조결성의 어려움, 억압적 노사관계, 일방적 노무관계 시스템 등에 대한 불만이 높다. 대사관은 기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현지 노동자들의 문제도 같이 다루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오리엔테이션 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배한진 : 문화적 차이의 문제와 의사소통의 문제가 크다. 대사관 입장에서는 이 나라에 한국기업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솔직히 인권보다는 필리핀과의 우호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호이득이 되는 경제협력을 추구한다. 투자자에 대한 주의 권고는 하고 있다.
- 정귀순 : 기업 협력만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업, 근로자 등의 조건을 다 다루어야 한다.
- 배한진 : MOU체결 있어서는 노동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체결을 큰 성공적인 것으로 떠들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과장해서 좋은 점만을 부각 시키고 있다.
- 엔지오 : 까비떼에서 한국기업에 의한 노동인권침해사례가 있다.
- 윤석영, 이창호 : 소수이다.
- 엔지오 :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다. 한국투자자협회와 대사관에서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배한진 : 기본적인 인권침해 등 문제사례가 있으면 알려 달라.

7월 7일 전체 평가회

사회 : 정귀순

* 정귀순 : 이번 일정은 활동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의미 있었다. 감시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을 더 활성화 시켜야겠고, 해외투자기업연수생과 이주노동자와의 연계성을 찾아야겠다.
이에 관련한 프로그램의 평가와 귀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 최미경 : 노동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은 효과적이었고, 깊이 있는 조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실무진행에 있어서 여러분과 늦게 결합한 것이 아쉬웠지만, 같이 연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서 좋았다. 여러 단체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내용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다.

* 모경순 : 해외기업 감시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다. 사전준비가 돼야하고 선발대가 현지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이귀보 :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내용 파악을 하지 못한 게 아쉽다. 막연한 생각으로 참여하다 보니 혼란스럽다. 해투기업 감시는 필요한 사업이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지 노동법의 이해가 선행돼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귀환프로그램도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야할 것이며 다양한 접촉과 대안을 가져야 한다.

* 김민정 : 해투기업관련에 있어서는 정보공유가 계속되길 바란다. 귀환노동자 프로그램은 사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이었다. NGO와의 만남에서는 내용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대사관과의 미팅에서는 소득 있었다. 사전에 진행 역할 분담이 좀더 돼 있어야(코디네이터, 총무, 기록, 사진 등) 한다. 국내 단체의 연대 기회를 얻었다.

* 이상아 : 까비떼에서의 일정이 아쉬웠고, 국제민주연대의 역할과 무엇을 얻어야 하나의 고민을 할 기회였다.
* 이지연 : 짧은 기간 안에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고 개인적인 사전준비가 부족했고 명확하지 못한 주제와 사전 준비 부족이 아쉽다. 까비떼에서 새로운 고민과 관심을 얻었다. 귀국 후에도 계속 고민하고 사업을 구상해야겠다.

* 이영아 : 현지 노동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큰 성과였고, 해외감시활동의 측면에서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지속적인 진행이 돼야겠다. 짧은 일정, 많은 내용에 대한 욕심이 컸다. 큰 부담이 없어야 잘 진행될 수 있겠다. 준비팀 구성에 적극성이 없었다. 현지 양측 스텝과 코디테이터간의 사전 소통이 있어야 하고 사전 준비가 돼야 한다. 귀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제를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과 현지에서의 차이가 크다. 이번은 시작의 틀거리를 만든 기회였고, 이제 세분화 전문화 시켜야 한다.

* 임성희 : 이주노동사업단체들과의 만남이 좋았다. 까비떼의 초기노조에 있어서 노조활동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수 있겠다. 사전에 얻을 수 있는 정보인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 오갔다. 더 심층적인 얘기가 오갈 수 있었을 텐데... 현지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고, 지원·연대의 가능성을 만났다. EPS 신청자들의 만남에서는 답답함과 고민이 많았다. 이것이 한국에 있는 필리핀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설명될까.

* 마크 :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다. 서로의 의사소통과 내용교환이 어려웠고, 서로 다른 NGO와 노동자들이 만나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 프로그램 세부디자인이 부족했다. 귀환뿐만 아니라 가족, 가정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 추가돼야 더 현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정귀순 : 해투기업에서 조사와 교육을 공유한 프로그램이었다. 이 둘을 특화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코디네이션이 부족해

참가자들의 역할이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민주연대의 짐을 무겁게 했다. 사전 워크숍이 필요하다. WAC와 국제민주연대가 처음의 워크숍이라 충분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졌고, 충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면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했을 것이다.

프로그램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분담이 필요하다. 국제민주연대는 조사와 교육의 연계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전망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주연대의 연대 또한 필요하다. 귀환프로그램에 대한 코디네이터가 불분명했다. 예를 들어, 해투기업에 대한 코디는 국제민주연대였고, 인니에서의 귀환프로그램 코디는 야디를 중심으로 한 부산이었고, 필리핀에서는 마크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친구들이었다. 이에 대한 사전 인지가 부족했다.

사전 준비가 부족한 결과로 현지에 와서 고생을 했고, 시간에 비해 많은 일을 하고 간다.

해투에 관련해서는 국제민주연대가, 귀환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이주연대가 맡아서 뒷정리를 해야 한다. 귀환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마크씨가 제시한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평가 및 자료

인도네시아 방문 평가서

(귀환 노동자 간담회와 자카르타 오픈포럼을 중심으로)

김민정 (안양 전진상복지관 위훔)

1. 들어가며

●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을 통해 현지 해외투자기업 문제와 이주노동의 연관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 인도네시아내의 다양한 그룹에서 활동하는 젊은 활동가와 현장 노동자들과 대화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운동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 인도네시아 현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과의 연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들을 만나는 기회였다고 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여러 단위에서 조직되었고 이주노동자 관련 그램은 현지사정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 의사소통의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한 준비 미흡으로 아쉬운 점이 남기도 했다.

2. 귀환 노동자 간담회에 대하여

● 준비과정에서부터 준비가 미흡했었던 갔습니다. 그런대로 간담회는 진행되었고,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나름대로 성과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봅니다.

● 땅덩어리가 넓은 지역이라, 이동거리가 만만치 않은 특성상 한 번에 많은 노동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 제안이 있다면, 현지에서 이러한 귀환프로그램은 이들 참여자에 대한 공식적인 재정 지원이(차비, 숙식비 등) 있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3. 자카르타 오픈 포럼

● 서부 자와 지역의 이주노동자지원단체들과의 포럼은 한국에서부터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고 봅니다.

● 우선 어떤 의제로 이야기 할 것인가에 대해 한국 내에서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과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한국 측에서 현지 이주노동자단체 상황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 단체들을 조직하고 장소를 섭외하는 등의 일을 이주노동자 운동과 관계가 적은 현지 단체인 LIPS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활동기반이 대체적으로 열악한 현지 활동가와 단체에게 시간적, 재정적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4. 기타 생각들….

● 7월초 방콕NGO 포럼에서 인도네시아 KOPBUMI(이주노동자 연대 단체)에서 온 친구를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결론은 저희들이 현지 이주노동의 주 이슈에 대해 사전 지식들이 전혀 없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들 국가내의 이주노동자조직들의 주 이슈 그리고 활동가 구성, 조직 형태 등에 따라 단체들의 관심사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들에게 한국내의 연수생 문제와 EPS 문제에 관해 연대를 제안 할 때,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있어야만 좀 더 실현 가능한 연대 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인도네시아 방문기

이귀보 (아시아의 친구들)

옷을 넣었다 뺐다 몇 차례 씨름을 하고나서야 여행가방 하나를 만들었다. 여행 중에 세탁이 가능한지 어떤지 알 수 없어 갈아입을 것을 얼마나 준비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인천 공항에서 일행을 만나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자카르타행 비행기에 올랐다. 날씨는 쾌청했다. 이런 저런 걱정이 한방에 날아가는 듯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런 저런 자료를 다시 훑어보며 그렇게 7시간을 날았다. 90년인가? 비행 내내 귀가 아파 고생한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 여행이 견딜만하겠다 싶었다. 오랜 줄서기 끝에 입국비용(비자값 25달러)을 지불하고 입국 심사대를 거쳐 짐을 찾아 나서는데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았다. 밤이었다. 마중 나온 립스(LIPS)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놓였다. 짐을 싣고 촘촘히 붙어 앉아 숙소를 향해 달렸다. 그동안 많이 변했을 자카르타 풍경이 궁금했지만 그럴 새도 없이 매연이 덮쳐왔다.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보다 9배가 크고, 인구는 2억이며, 큰 섬 다섯과 주요 섬이 서른이고, 육천이 넘는 사람 사는 섬을 포함해 일만 사천 남짓한 섬이 있다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90% 넘게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국가이지만 다른 종교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삼백 남짓한 종족이 있으며, 언어가 오백 가지가 넘고 종족별로 서로 고유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잠깐 역사를 살펴보면, 9세기까지는 불교왕조, 15세기까지는 힌두교 세력이, 이후 이슬람교가 전파되어 오늘에 이르렀단다. 16세기 초에 포르투갈인이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발을 들였고, 1605년 네덜란드인이 진출해서 300년 넘게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삼았다가, 1942년부터 3년간 일본이 머물렀고, 1945년 8월 17일 일본이 패퇴하여 독립하게 되었는데, 인도네시아를 다시 쥐려는 네덜란드와 3년에 걸친 독립전쟁을 치르고서야 1948년

에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다고 한다.

남의 나라 지배하에 있던 나라가 그러하듯 인도네시아도 역사적으로 굴곡이 심한 경험을 하였고 이러한 여파인지 아직도 우리보다 더 지난한 민주화 과정에 있는 듯하다. 48년 독립 후, 초대 수카르노 20년-수하르토 군부 30년-하비비 1년-와히드 2년-메가와티 3년-현재 총선, 이런 혼란을 겪어 왔고 이 때문에 자원이 풍부하고 산유국임에도 실업률을 30%-40%로 추정할 만큼 국민들의 생활이 궁핍하다. 90년인가 그때도 상위 5%가 인도네시아 경제권을 쥐고 있다 했는데 지금도 그렇다니... 일자리 찾아 어디든 기를 쓰고 갈밖에...

보고르(Bogor)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국내선을 타고 스마랑(Semarang)으로 향했다. 땅덩어리가 큰 나라여서인지 건물 규모가 큼직큼직했고 전통적이란 느낌이었다. 자연이 좋아서인지 국내선 공항 대기실에 있는데 잘 가꾼 널따란 정원에 있는 듯했다. 아침에 이동하는 틈에 들러본 공원에서 장대한 나무 사이에서 들이킨 깊은 숲 같은 느낌과는 또 다른 편안함이었다. 스마랑 숙소는 리조트 호텔이라 전날보다는 씻기 편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모두 좋아했다. 산을 굽이굽이 돌아 질주해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상쾌할 수 없었다. 설악산을 오르는 것 같다고도 했다. 숙소가 산 중턱인 듯싶었다. 기온이 차니 모기가 없을 것이라는 말에 아이처럼 좋아했다. 여름에 모기장 없인 못자는 데다가 전날 뭔지 모를 것에 무릎 근처를 재봉질 당한 때문에 듣기만 해도 살 것 같았다.

스마랑은 모든 일행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갖가지 예쁘고 아름다운 꽃과 들판과 환상적인 화산의 자태하며, 그 안에서 서로 얘기하고 생각을 나누며 사람 사는 모습이 그리 많이 다르지 않구나! 새삼스러워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남편은 일어나 커피를 마셔요. 난 아침 준비하랴 아이 챙기랴 바쁘지만 남편은 거들지 않지요.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인도네시아 주부이자 일하는 여성의 얘기는 얼마 전에 늘상 듣던 아직도 간간이 들리는 한국 여성의 하루살이와 흡사했다. 식구, 특히 남편과 가사분담 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목표처럼 들리던 그때로 돌아가 앉아있는 듯했다. 남편에게 가사를 얼마나 더 시키

는가에 따라 성공한 결혼 생활인가 아닌가 판별하려는 듯이 느껴지던 그런 얘기들이 인도네시아 스마랑 연수장에서 쏟아지고 있었다. 세상이 변하고 발전한다는 것이 대체로 유사한 경로를 밟게 되는가보다,,, 차도르로 감싸 나이를 감지할 수 없는 그네들의 얘기가 하소연과 진지함이 심각해야하는데 귀엽기만 했다.

가부장적인 이슬람 문화가 지배할 가정생활과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극도로 적용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해외 투자 기업에서 투쟁으로 맞서며, 인도네시아 여성노동자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열고 있었다. 50불도 안 되는 월급으로 생활을 꾸리며, 의사에게 자신의 생리현상을 확인시켜야 얻을 수 있는 생리휴가 제도에 분노하면서 서로 연대 활동을 넓혀가고 있었다. 이러한 한국해외투자기업의 만행을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놀라워하는 한국 대사관이 기업 측의 얘기만 듣고 한국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끝없이 밀어 넣고 있을 때도 이네들의 투쟁 결의는 더욱 높아만 갈 것이다.

스마랑의 마지막 일정, 인도네시아 일정을 공유하게 된 목적 가운데 하나인 귀국한 이주노동자들과 만나는 자리,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국에서 자리 잡고 사는지 모두 궁금해 했는데, 들리는 얘기론 그리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다. 다양한 경로로 귀국이주노동자 소식을 듣고 접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전제하고 만나는 자리였다. 모두 10명을 만났다. 정착한 사람도 있고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하다 날린 사람도 있고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8명 정도)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귀국 후 자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준비에 한국 시민단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등등, 사전 조사차 방문한 목적이 한방에 날아가는 암담한 느낌이었다. 이들의 현실이 캄캄했고 한국의 상황에 갑갑했다. 서로 동포를 만난 듯한 반가움도 잠시, 서로 답답해하며 힘겨운 얘기를 이어갔다. 이들은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희망으로 삼고 있었다. 이제나 저제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정부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만 체결하면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지푸라기를 부여잡고 있는 셈이었다. 그 자리에서 차마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을 꺼내놓을 수가 없었다. 혹시 책임질 수 없이 조그마한 기대감이라도 주게 되면 어쩌나 싶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웠다. 귀국 프로그램을 생각하려면 더 많은 조사와 아주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서로 확인하는 자리였다.

아름다운 스마랑에서 우리 일정은 이렇게 숙제만 잔뜩 안고 끝이 났다.

필리핀 보고서

이영아 (안양 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

(일정기록 등은 앞부분과 겹치는 부분도 있으나 작성자의 평가와 섞여 있어 그대로 싣습니다-편집자주)

목적 : 한국의 해외투자기업들의 현지노동자탄압사례를 조사한다.
귀환한 이주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공유한다.

일시 : 2004년 7월 1일 ~ 2004년 7월 8일

일정 : 1일 필리핀 경제자유지역 까비떼 도착
(인도네시아, 한국 출발팀 합류)
2일 까비떼공단 들어가기, 왁(WAC)의 브렌치 방문, 골프노동조합 조합원 간담회 경청, 까비떼공단노동자 주거지역방문
3일 1차 워크숍 : 한국기업 노동조합간부들과의 만남
4일 2차 워크숍 : 필리핀, 한국의 노동운동의 경험나누기, 한국의 이주노동자비디오 시청, 연대의 시간,
저녁에 마닐라로 이동
5일 필리핀 NGO와의 워크숍
6일 POEA앞에서의 미란떼집회 결합, 귀환한 노동자 그리고 EPS신청한 노동자 간담회, 미란떼와의 연대의 밤
7일 한국대사관 간담회, 필리핀박물관 방문
8일 한국귀국

내용

● 1일 :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한 팀은 미리 까비떼 지역에 도착하였고 부산의 정귀순대표, 안양의 이영아 합류, WAC의 세실이 마중 나옴

● 2일 : 아침에 미팅을 갖고 전체일정을 검토하고 이동시 차량문제와 워크숍 준비를 점검함. 마닐라에서 모든 이동차량, 식사, 단체섭외 점검은 필리핀의 마트와 김지연씨가 책임지고 타임테이블을 작성하기로 함.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평가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원래는 2일은 일정을 갖지 않고 쉬기로 하였으나 WAC에서 까비떼지역 방문을 제안하여 움직이기로 함.

· 까비떼공단 방문 : 진출해있는 한국기업이 전체공단의 약 45%정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방직계열이 많다. 한국인투자협회가 공단 내에 사무실을 갖고 있다.

· 왁(WAC)의 브렌치 방문 : 활동가에게 필리핀의 최저임금체계의 결정과정과 까비떼지역의 노동조합탄압 실상을 들을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필리핀에는 농업노동자들이 많은 상태이고 공업노동자보다 지역마다 많은 차이가 있고 그것을 그 지역에서 생활하며 들어가는 생활비의 물가를 감안하여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듯하다. 투쟁을 담은 비디오 시청

· 노동자 주거지역 방문 : 까비떼지역의 노동자들 대부분이 현지인보다는 이주한 노동자들이어서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한방에 2교대하는 친구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한국의) 70년대 닭장집같은 분위기와 흡사하였다.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얽혀)있는 전깃줄이 인상적이었고 도랑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저것이 넘쳐 집안까지 들어오는 것이 상상이가고 그 가운데 그들의 항상 웃는 얼굴이 겹쳐진다.

· 골프 노동조합 조합원 간담회 : 골프장과 시골마을의 조그만 미사를 보는 장소에 노동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 한 간부가 그동안 걷어진 조합비를 사용한 내역서를 열심히 설명하고 난후 한 왁의 여성활동가가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등과 자본의 세계화에 대하여 열심히 설명한다.

평가 : 세계화가 진행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보며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마르크스 통치때 어떻게 탄압을 하였는지 느낄 수 있었고 한편으로 조직률이 현재 3%인데 어떤 전망을 내올 수 있을까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였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질문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좋을 듯하다.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자.

● **3일 : 한국기업 노조활동가들과의 워크숍**

서로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짝을 지어 서로에 대해 정보를 알아보고 자기의 짝을 소개하였다.

현장 활동가의 증언 :

1. KOSIPHIL : GAP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공장이 두 군데가 있어 현재 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노조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노조는 거부하였다. 이에 3차례에 걸쳐 경찰과 군대가 출두하여 탄압을 하였지만 이를 계기로 노조의 조직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 회사는 바쁠 때는 3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시켰다. 그리고 항상 초과근무를 하는데도 회사는 적자타령이고 (이를)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이전하려고 할 때 1개월 치 체불임금이 있는 상태였다. 2002년 파업을 시작하였는데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합원이 보상금을 받기를 원해 합의한 상태이다.

2. 그룹토의 (청원, 대양, 필스존)

· 대양 : 1992년에 설립하였고 항상 초과근무를 시킨다. 현재 120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공정에 비하면 너무 적다. 불이 났을 때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 탈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정도로 복지가 안 좋다. 그리고 노조가 없으며 계약직이 많이 일을 하고 있다. 1995년도에 크게 성장을 하였고 1997년 현재 1100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고 현재 비정규직이 80%로 구성되어 있다.

· 청원패션 : 1990년 설립, 셔츠를 생산하고 1991년부터 스웨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나 2002년 스웨터공장은 문을 닫았다. 1995년부터 조직 '아모'를 결성하였다.

매니저가 임금인상을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가끔 4~5일씩 일하면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공장에서 자며 일한다. 2시간자고 일을 다시 시작할 때도 있다.

공장에는 YELLOW FEDERATION 있고 1999년에 6명 해고됨.

해고된 노동자들 투쟁하여 한 명은 보상금을 받고 나머지는 회사로 돌아옴.

현재 병이 나도 의사진단서가 있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시 하루 일당이 약값 등으로 나가게 된다. 한 여성이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뜨거운 태양아래 서있게 하였고 한국인관리가 임산부가 화장실을 갔다는 이유로 발로 차서 소송 중에 있다.

· 필스존 : 13년 근무하였으나 임금인상이 전혀 없고 조직을 만들면 일거리가 들어오지 않으므로 노조가 없는 게 낫다고 선전하고 있다. 휴가는 1년에 5일이 유급휴가이다.

PCE 정규직 50%의 동의를 얻으면 노조결성을 인정한다. 그 과정을 PCE라고 한다.

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까비떼 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중단하라고 총을 들고 협박하고 있으며 바쁠 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어떤 때는) 2달 동안 물량이 없어 놀고 있으며 언니에게 돈을 빌려 쓰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 서한을 보냈지만 '우리는 모른다'(고 한다). 물량이 없을 때는 몇 달 동안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잔업수당은 지급되나 1/4은 세금으로 지급된다. 세금에는 제한이 없어 초과수당이 붙을 때면 세금도 더 나간다.

비정규직은 임금인상이 되면 함께 임금인상이 된다. 조직이 생기고 난후 달라진 것은 한국인관리자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 공통의 문제점 : 장기휴가(일을 할 때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없을 때는 몇 달 씩 논다). 노조조직을 방해하기 위한 장기휴가에 들어가고 회사가 개인별로 협박하고 총으로 협박한다.

● **4일 2차 워크숍 :**

1.필리핀의 노동운동 : 마르코스에 의해 어용노조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노동자들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술이었다. 그리고 황색노조는 필리핀의 노동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1980년 KMU라는 민주노조가 생김.

필리핀노동투쟁은 1872년 스페인치하에서 생김. 1920년 노동자당 결성하였고 1981년 마샬법이 만들어짐, 1950년 이후 저임금 고용불안이 심각해지면서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됨. 1985~94년은 거리행진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활성화되었고 35개 노조가 결성되었다. 2000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가 되어 지금은 4개가 남음 (까비떼)
일주일에 12~14시간씩 일을 하고 바쁠 때는 36시간 계속 일해야 하는데 이것은 파업이 가능할 수 없게 만들어 이것이 WAC의 현안문제이다.

(그룹토의) 까비떼지역의 활동가들과 연대할 수 있는 것들은?
까비떼 지역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기업현황을 우선 해야 한다.
한국기업의 자국노조와 네트웍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투쟁시 물품들의 불매운동을 할 수 있겠다.
소식지를 만들어 국내단체에 배포가 가능하겠다.
KCTU에 제안하여 기업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자.

· 2차 워크숍 평가 :
· 토론주제가 다르다.(진행자가 충분히 의사소통이 안 된 듯하다)
· 필리핀 WAC의 활동가들내에서 이번 토론에 대한 의미와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 어려운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고무되었고 집중도와 관심이 높았다.
의외로 어려운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참가자가 두드러지고 한국의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았다. 우리의 준비가 부족한 듯. ETU(평등노조)의 영상물이 우리의 워크숍의 것과 맞는 것인지...
· 이노센터의 실무자들에게 좋은 기회, 경험이 될 수 있겠다. 1년에 한번씩 실무자프로그램으로 다듬어 진행하였으면 한다. 웍크숍의 목표가 정확히 공유 안 되어있는 것 같다.

● 5일 BAYAN의 사무실(우리나라의 민중당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고 센터에 여성, 노동, 이주노동자 등의 조직들이 있다.)

1. 오픈 포럼 : 미란떼, 가브리엘라, 바얀당, 이주노동자 어린이를 위한 조직 등 9명 참가
고용허가제에 대한 미란떼의 입장은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강한 문제를 갖고 있고 EPS에 강한 문제를 느끼고 있다. 현재 EPS를 신청하는 사람들

을 설득하고 조직하고 있다.
마르코스정부의 부채탕감을 위하여 추진하기 시작한 인력수출정책을 해오고 있고 17년째 해오고 있다. 3천명이 수출되고 있고 해외의 인권침해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994명이 물리적정신적으로 폭행을 당해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고 34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자유주의적 필리핀의 정책으로 내수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해외에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보내더라도 가족들이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리핀노동자들이 돌아와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필리핀경제가 이들을 뒷받침해주지 않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이 필리핀경제상황과 연관되어 있으며 모든 물가 등이 올라 귀국한 이주노동자들이 돈을 보내더라도 물가를 따라올 수가 없어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부의 귀환프로그램은 취업, 경제적인 것에 머물러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 미란떼는 귀환프로그램은 가족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가족들이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가족과의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 귀국한 이주여성의 발표 : (쉴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망침, 착취를 당했으면서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생계유지가 안되어...
(니올라) 쿠웨이트에서 너무 힘들어 도망 나옴, 많은 상처를 안고 귀국하였으나 정부의 쉼터에서 있었는데 방 하나에 백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쿠웨이트만 아니면 어디든지 가고 싶다.

질문 : 귀환프로그램에 대한 미란떼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귀환프로그램에 대하여 제안할 것이 있으면?
(답) 정부의 정책이 인력수출정책이므로 정부의 프로그램을 믿지 않는다. 정부는 경제구조의 근본원인,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KNP(Koalisyon ng Nagkakaisang Pilipino 연합필리핀연대)의 프로그램은 가족과 함께 커뮤니티구성을 진행하고 귀환가족과 아이들을 교육해서 다른 지부를 계속 만들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진행할 센터를 만들려고 한다. 센터에서 이주아이들을 위해 탁아방을 만들고 가족들의 모임을 만들어 미팅을 주선하고 BAYAN MUNA(민중당)에 가입하도록 한다.

5일 오픈포럼에 대한 평가 : 미란떼의 고용허가제에 대해 선명성을 주장하는 것 같다. 귀환프로그램에 대하여 사례발표이후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참여하였다. EPS에 대하여 미란떼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함께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토론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너무 부족하였다. MOU 국가의 NGO와 EPS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위해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여 집중적으로 토론해보는 것이 좋겠다. 한군데서 함께 모여...

● 6일째 POEA앞의 집회

POEA에 도착하여 피켓팅하고 지지연설하고 정리

미란떼 사무실에서 왜 집회가 빨리 끝나게 되었는지 마이타가 설명 : 경찰들의 협박이 있었다고 함.

1. 귀환한 이주노동자와 EPS 신청한 노동자들과의 만남

귀환한 이주노동자의 경험담 그리고 지금 입장

· 안테로

1995년 한국에 감. 당시에 연수생으로 약품회사에서 일하였는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밤 8시~12시까지 일하여 굉장히 힘들었음, 계속 근무하면 건강에 나쁠 것 같아 도망나왔다고. 그리고 서울 와서 와이프롤 만남, 부인도 공장에서 도망친 상태였고 서울에서 체류하게 되었다. 아들이 7개월만에 죽었는데 당시 병원갔는데 앰브란스 비용이 너무 비쌌다고, 다시 다른 회사에 취직함

더 좋은 회사로 옮기기 위해 알아보았지만 4개월 동안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 귀국하게 됨, 자신의 경험은 이주노동자들의 슬픈 경험이지만 일할 때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어 행복했다고 한다. 돌아와서 우리는 직업이 없었고 코코넛공장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가진 것은 집밖에 없었어도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 현재 아들이 2명이 있다.

· 주아니또

1995년 연수생으로 입국,98년까지 연수생으로 울산에서 근무, 일하던 중 IMF가 나서 사장이 돌아가라고 함. 다른 이들과 함께 담을 넘어 도망침, 그 후 서울에서 취직을 하였는데 2달 동안 임금을 주지 않음,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사장은 도망을 쳐서도 일을 안해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고, 많은 회사들이 휴업을 반복해서 해서 그 회사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부인도 삼촌이 죽어 심리가 불안정하여 자살을 몇 번 시도하였으나 엠네스티(사면)기간이 안되어 벌금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 부인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귀국을 결정하였다. 부인과 아이들의 걱정으로 다음 엠네스티기간에 본인도 귀국 결정하였고 현재까지 직장이 없는 상태이다. 부인도 현재 두통에 시달리는 상태이다.

· 채트

1994년 한국에 여행비자로 들어감, 동두천시 양말 공장에서 일하였고 서울이 70만원을 받는 반면 38만원을 받아 당시 한국노동자들이 그 공장에서 도망을 가 나한테 10만원을 올려줌.

1년 일을 하고 월급이 부족해 성수동에서 일하였는데 75만원 받음 그러나 사장이 질이 안 좋아 월급을 제때주지 않아 다시 도망함, 어떤 사장은 여성들을 폭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면 너가 나가도 다른 사람이 올 것이다. 사장이 문을 잠가 놓은 상태여서 창문으로 도망감. 사장이 이주노동자를 맘대로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잘못됨, 8개월 반 임신중 아이가 사산됨, 그러나 사장은 도와주기는커녕 무단결근했다고 해고함.

· 젤리

1997년 2주간 자수 교육을 받고 영등포공장에서 일함, 당시 일을 잘해 70만원 받았다고 함.

임금인상 요구하였으나 안 되어 다른 곳으로 옮김, 80만원 받았지만 필리핀 남성과 비교해서 적었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욕을 자주해 필리핀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아들을 낳아 필리핀에 보내고 아들이 그리워 귀국함, 그러나 사장이 본인을 초청하였으나 한국대사관에서 허락하지 않음.

현재 남편이 한국에 있어 한국에 가고 싶다고.

(그날 모였던 노동자들은 서로가 연락처를 주고받아 EPS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하기로 함)

2. 미란떼와 연대의 밤

· 늦은 시간에도 많은 필리핀노동자들이 방문을 하였다. 노동가수의 공

연이 있었다.

● 7일 한국대사관 간담회(서기관)

· 까비떼지역의 현지노동자실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한국대사관에 보내주기로 하고 현지 회사실태는 대사관을 통하여 얻을 수 있을듯함.

● 7일 전체일정평가

- 개인 평가 -

· 짧은 일정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였던 측면이 있다. 까비떼지역에서의 워크숍이 경우 그들의 증언과 한국노동운동의 경험, 연대의 모색 등을 진행하였는데 전체적으로는 진행상 큰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가지의 내용을 깊게 하기위해서는 너무 많은 주제보다는 한가지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나을 듯하다. 많은 것을 욕심내기보다 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성과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후에 다시 프로그램을 진행시 대상을 선명하게 정하고 그들을 집중해서 만나서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NGO와의 워크숍은 준비과정에서 필리핀단체와 목적과 우리와 상대방에 대한 정보공유가 부족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만나서 서로를 탐색하고 입장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핵심내용에 접근이 쉽지 않았다. 또한 그러다보니 그 과정에서의 원활하지 못한 면들이 한국의 참가자들이 현지 NGO에 대한 불만과 서로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 같다. 이것은 한국 측의 참가자들이 국제모임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 주최의 선명성이 모호했다. 국제민주연대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현지조사였고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부분까지 국제민주연대가 책임지고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부분은 이주노동자인권연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그러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참가한 활동가들한테는 건강한 현지노동자들을 만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본다. 또한 참가한 활동가들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태도는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 따라서 이후에는 좀 더 프로그램을 다듬어서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 또한 대상도 한 지역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좀 더 정보를 파악하여 다른 지역에도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 EPS의 모니터링의 경우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하고 한국이 주최가 되고 해당 나라의 NGO들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 또한 방문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방문기간이 그다지 긴 것은 아니지만 계절과 숙소환경에도 조금 더 배려를 하였으면 한다. 본의 아니게 의지와 상관없이 영향을 받는 점이 있는 것 같다.

인도네시아-필리핀을 다녀와서

모경순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사무처장)

국제민주연대 주관으로, 6월 22일부터 7월 8일까지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활동가 10여명과 함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해외진출 한국기업 노동자들과의 워크숍, 귀환노동자들과의 간담회, 한국대사관 방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지방문을 통해 가졌었다. 이번 현지방문의 목적은 첫째, 국제민주연대의 중점사업인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감시활동과 실태조사 차원의 현지 한국기업 노동자 교육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며, 둘째, 자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의 정착 및 적응을 돕는 귀환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귀환노동자들과의 간담회, 셋째, 8월 17일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고용허가제의 진행과정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해외진출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만나는 것이 흥미롭고, 돌아간 이주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선 그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좋은 경험은 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한국기업 노동자들과의 워크숍

인도네시아 스마랑지역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의 워크숍은 홍콩 AMRC가 주관하고, 스마랑에 있는 YAWAS 단체, LIPS(노동자료센타)가 노동자조직 및 실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3박 4일 동안 진행되었다. 여성의 사회화, 세계화속의 아시아노동자들의 조직, 여성지도자들의 리더쉽에 관한 강의, 특히 신자유주의하의 다국적기업들의 실상과 구조적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흥미로웠다.

한국기업 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노조결성을 준비하다 해고되거나, 작업물량이 적을 때는 100명, 200명 대량해고를 일삼고, 생산주문량이 많아지면 비정규직으로 재고용, 회사부도처리하고 줄행랑 친 사업주를 고발하고 호소하는 이들, 한국인 관리자들의 욕설과 무례하고 모욕적인 태도는 다른 어느 다국적기업과 비교해도 단연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심각한 노동탄압에도 쉽사리 문제제기를 못하는 것은 높은 실업률,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가족들의 생계, 놀라운 사실은 노동자들이 대부분 월 2회 임금을 나누어서 지급받고 있는데, 이는 월급으로 받을 경우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충분한 생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나누어서 임금을 받는다고 했다.

귀환노동자들과의 만남

한국말을 능숙하게 잘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만났을 때의 반가움은 외국에서 한국인을 만난 것과 비슷하다. 참석한 귀환이주노동자 11명은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의 생활을 발표하였는데, 부모님을 도와 금은방을 운영하는 노동자를 제외하면 대다수 자립된 경제활동이 곤란하여, 어떻게 하면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까 하는 한 가닥 희망으로 우리 일행들을 만나러 온 것임을 알았다. 자국에서는 도저히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할 수 없어, 또 다시 다른 나라로 이주를 반복해야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삶이 무겁게 다가왔으며, 귀환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현지 NGO 단체와의 간담회

현지단체 LIPS가 조직하였으며, 참여한 11개 단체들은 노동자(자국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해외노동자)와 여성인권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과 지원활동을 하는 단체들이었다. NGO 단체의 역할에 대한 나의 발제를 시작으로 귀환노동자 누리씨의 한국에서의 경험발표, 평등이주지부에서 제작한 비디오 상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단체들은 비교적 많은 질문과 관심을 나타냈었다. 특히 'Stop Crakdown' 비디오상영이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주노동자들이 투쟁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신선하게 보였던 것 같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 참여한 단체들의 활동과 역할,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포럼을 끝내야 했던 것이 몹시 아쉬웠다.

♠ *필리핀에서*

수출자유지역 까비떼에서 한국기업 노동자들과의 워크숍

가비떼는 한국의 마산수출자유지역과 같은 도시로서, 한국, 일본, 대만 자본의 회사가 421개있다. 그중 약 45%가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었으며, 대부분 18~21세의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있었다. 까비떼는 과거 농작물이 재배되던 농경지였는데 정부주도로 조성된 공단으로, 현재 필리핀 정부는 까비떼 수출자유지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노조금지, 파업금지"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분규가 발생해도 다국적기업에게 어떤 법적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저임금으로 일급 237페소(약$4)를 받고 있으며,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로, 문제는 많은 회사들이 이 237페소마저 지키지 않아, 160~170페소를 지급하는 회사도 많다는 것이다.

현지 한국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도 노조결성에 대한 탄압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는데, 기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업체가 상당수, 생산물량에 따라 회사가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매일 12시간 장시간노동에 바쁠 때는 34~36시간씩 일을 시키고, 노조원들에게는 아예 일거리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탄압하는 등의 파렴치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와 같이 높은 실업률과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유휴 노동력이 남아돌아 노동운동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기다 필리핀 경제침체는 노동운동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 같았다.

현지단체와의 미팅, 구미에서 돌아간 친구들과의 만남

현지단체와의 간담회는 해외노동자를 위한 활동단체인 마이그란테, 여성단체인 가브리엘라, 바얀정당, 아동이주 관련단체와 이루어졌으며, 그들로부터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따가운 비판과 질책을 들었으며, 기대 이상으로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과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간담회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애초 의도한 목적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자국정부의 인력수출정책에 대한 비판과 고민들, 해외노동자들이 겪는 인권침해에 대한 지원활동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귀환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를 신청한 사람 4명,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 4명이 비교적 진솔하게 한국에서의 경험과 귀환하여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였다. 고용허가제를 신청한 이들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보는 모르고 월급이 800달러, 3년간 일할 수 있다며, 취업비용이 한 달 급여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며, 고용허가제에 대해 다들 궁금해 했다. 송출비리로 얼룩진 연수제도와 달리 고용허가제는 투명한 송출업무가 진행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과 함께, 송출비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안하고, 그들과의 아쉬운 작별을 했다.

애초 귀환노동자들과의 만남을 계획한 의도는 자국에서의 경제적 기반마련, 사회적응을 위한 귀환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위함이었으나, 경제적 궁핍함과 높은 실업률, 경제침체 등의 현지 사정이 워낙 어려워, 귀환프로그램은 보다 진지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체감한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2주일이 넘는 긴 일정,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경유하는 무리한 스케줄은 체력적으로 몹시 지치게 했으나, 구미에서 일하다 돌아간 이들을 만나기뻤고, 해외진출 한국기업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접 보고 들었던 일들, 한국대사관 방문 등등이 나름의 의미는 있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 불편한 잠자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정과 매일의 평가를 성실히 함께 하였던 이주노동자단체 활동가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느라 무지 고생한 국제민주연대에 감사드린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문기

김민정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6월 22일부터 7월 8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방문 프로그램은 국제민주연대의 해외한국기업 감시활동의 일환이었지만, 참가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한국서 일하다 돌아간 노동자들과 현지 엔지오들과의 만남을 통해 귀환프로그램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취지도 있었다. 더불어 한국대사관과 현지노동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송출비리근절 대책과 현지한국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국제민주연대를 비롯해 아시아의친구들, 안양이주노동자의집,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그리고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등 약 10명의 활동가가 함께 했다.

오랜 친구들과의 재회

수출자유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트레이닝이 예정되어있는 스마랑 지역의 한 숙소에서 야디와 누리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의 모든 일정에 함께 하기 위해서였다.
야디와 누리는 모두 부산서 일하다 작년에 귀국한 노동자들인데, 예전에 한국에서 일할 때,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위한 신문을 만들던 친구들이다. 물론 귀국 후에도 누리는 인터넷으로 영문기사를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야디는 6년 간 한국에서 일했는데 인도네시아 공동체 리더로서 왕성한 역할을 했었다. 야디는 그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속을 끓이며 할 일없이 지내왔는데, 어쨌건 실직상태로 인하여 어렵지 않게 이번 일정에 합류할 수 있었고, 녹슬지 않은 한국어 실력으로 프로그램 내내 한국어-인도네시아어 통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참가자들로 하여금 기대와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누리는 고향 족자카르타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과일을 가공해서 과자를 만들어 가게들에 납품하는 일이었다. 가족부양 부담이 비교적 적어서 그 수입으로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하였다. 한국의 작업현장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한참을 힘들어 하다가 1년 9개월 만에 귀국하였던 그였지만, 그새 볼 살도 보기 좋게 쪘고, 표정도 편안해져 있었다. 그 날 우리들은 밤늦도록 김치, 컵라면을 안주 삼아 소주잔을 기울였다.

수출자유지역 노동자들과의 만남

인도네시아의 스마랑 지역과 필리핀 까비떼 수출자유지역에서는 한국기업에 근무하는 현지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까비떼 지역은 전체 250개 업체 중 120개 업체가 한국기업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했다.

현지 한국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탄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사소한 일 - 작업장에서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 등 - 로 꼬투리를 잡아서 해고한다. 골치 아픈 노조원들은 한국의 모회사에 연수생으로 보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회사 측과 결탁한 사복경찰들이 노조활동가들에게 노조활동을 중단하도록 회유, 종용, 협박을 일삼는다. 매일 14~15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도 이들을 고달프게 하는데, 피크타임에는 34~36시간씩 일하기도 한다. 또한 기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파렴치한 업체들도 있다.

문제는 일차적으로 현지의 노동법조차 준수하지 않고, 폭압적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한국기업들에게 있겠지만 더욱 미운 것이 자신들의 정부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모두 정부는 외국투자자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동법의 예외만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출자유지역을 만들었다. 특히 필리핀 정부는 까비떼의 수출자유지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파업금지, 노조금지(No Strike, No Union)"정책을 취하고 있고, 분규가 생길 때에도 외국기업들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다.

자국의 정부가 지켜줄 수 없는 권리, 오히려 자본과 기업주의 편인 정부 대신 이들은 힘겹지만 노동자 스스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조직, 노동조합의 길을 선택했다. 노동조합 중에서는 기업별로 노동자 절반이상이 가입하여 힘을 가지고 회사 측과 교섭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단 두 명이서 어용노조에 대항해 노동조합을 꾸리는 경우도 있었다. 노조 활동으로 인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들이지만 노조를 말하는 태도에서는 '자부심'과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필리핀 까비떼 지역에서 한국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한국팀 방문단은 향후 연대활동의 일환으로 △까비떼지역 한국기업과 그들의 한국내 모회사의 현황표를 만들고, △상시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하여 한국에서 해외한국기업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해외 한국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실태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에 알려 직접 조사와 감시활동을 하도록 제안하기로 하였다.

귀환노동자들을 만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12명의 귀환노동자들 중에는 그나마 소형버스를 구입하여 운영하거나, 금은방을 운영하여 그럭저럭 먹고산다는 얘기, 또는 한국서 번 돈 전액을 투자해 양계장을 시작하였으나 작년 조류독감 파동으로 쫄딱 망한 얘기까지. 그들 모두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였다.
필리핀에서 만난 귀환자들과의 만남에서 8명은 한국에서 일하다 돌아왔지만 다시 고용허가제에 신청하였고, 나머지 4명의 젊은 여성들은 한국에 가본 경험은 없지만 이번에 고용허가제 신청했다 하였다. 이들 참가자 대부분은 우리의 방문소식을 듣고 고용허가제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왔다고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아직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양해각서가 체결되기 전이었지만, 필리핀의 경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한국과 인력송출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을 아로요정부의 공적으로 대대적으로 과대 선전하였다고 한다. 아로요측이 고용허가제를 선거에 철저히 이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에 지원한 사람들이 가진 정보라고는 '3년 동안 일할 수 있다. 월급이 800달러 정도다.'라는 것이었고, 필리핀 노동부에서 한 말은 "무조건 기다려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고용허가제 지원자들에게 우선 정확한 정보들을 전해주고는, 한국 입국 전까지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송출비리에 대해서 그룹을 만들어 모니터링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여러 정보들에 대해서 만족스런 얼굴로 돌아갔지만 실제로 그룹을 만들고 감시활동을 해 내는 것은 그들의 몫으로 남아있다.

귀환노동자들과 현지 엔지오 활동가들, 그리고 한국방문단이 함께 만나

자유롭게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오픈포럼을 기획했으나 애초 우리가 의도했던 목적대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실업문제 해소와 노동조건 향상, 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해 함께 실천하고 연대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를 귀환자 그룹의 활동(귀환프로그램)을 찾아보며 구체화하고자 하였으나, 높은 실업률과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가족부양의 책임 등 이들의 삶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더욱 팍팍한지 만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은 더욱 답답하고 무겁기만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한국기업들의 실상을 깨닫고, 현지노동자들과의 연대의 기초를 마련하며, 귀환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주노동자지원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하면서 나눈 끈끈한 우정도 향후 연대활동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매일매일 이어지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연대의 밤은 즐겁고 유쾌한 시간들이었지만 한편으론 체력의 한계를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감기에, 눈병에 두 시간의 응급실 신세를 지며, 귀환 노동자의 통역에 의지해 타국에서 외국인노동자 신세가 되어본 것도 좋은 경험이었다. (여기까지는 저희 소식지에 낸 글입니다)

덧붙여...

▶ 해외한국기업 노동자들과의 만남

- 해외한국기업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해외 한국기업문제는 한국노동자, 민중,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체적으로 국제연대/아시아연대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참가한 단체들이 직접 연대하여 활동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민주노총·한국노총을 비롯한 한국의 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시키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이번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정보와 관련단체에 대한 정보, 노동자들의 인권·노동권 침해 상황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준비되었더라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AMRC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도구들과 다양한 참여의 방식을 활용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세계화·전지구화와 자본의 속성들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 좋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보는 내용도 의미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내용과 방식을 응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국에 현지법인연수생으로 오는 노동자들에게 입국 전 정보제공을 하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지 엔지오와의 만남

- 본래계획은 열린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한국방문단+현지엔지오+귀환노동자> 세 그룹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귀환자들의 삶에 대한이해와 삼자간 연대방안·역할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현지 귀환자 섭외의 어려움으로 스마랑에서만 귀환자들과의 만남을 진행하고, 자카르타에서는 현지엔지오를 중심으로 만남의 자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자카르타에서 현지엔지오와의 만남에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자는 취지였으나 오히려 현지엔지오들이 한국참가자들에게 질문이 쏟아져 정작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약 15개의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가 참가했는데 그들의 활동상황이나 역할들에 대해서는 알기 힘들었습니다.

- 연1회 열린포럼을 상설화하면 어떨까, 느슨한 정보교환 정도의 연대, 입국 전 교육활동과 귀환프로그램 공동모색 등을 생각하고 갔지만, 실제로 한 번의 짧은 만남으로는 이러한 성과들을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이란

생각이 들었고, 성과를 만들고 지속적인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와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미그란떼와 관계있는 단체(이름모름)가 이주자의 가족을 그룹핑하고 교육하는 사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송입국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문제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현지 엔지오들과의 네트워킹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 현지 엔지오의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한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가 역동적이고 활동과 사회변화에 대해서도 여지가 많고, 많은 시민들이 지지해주는 것이 동력이지만,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는 한국처럼 쉽지 않은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가들이 힘이 나고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진보일텐데 그런 의미에서 현지 활동가들을 더욱 북돋아주고 실제로 연대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 귀환자들과의 만남 · 귀환프로그램

- 한결같이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여 씁쓸한 마음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실업과 가난. 저임금 그리고 이미 증대된 소비욕구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 귀환프로그램이 아직 제 머리 속에도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지만, 개인의 인생, 그리고 삶과 미래를 나누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사회와 세상을 함께 바꾸어보자는 사회변혁운동이기도 할테구요. 자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면서 실천적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겠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귀환프로그램은 한국내 공동체 활동가나 노조활동가들을 위한 '활동가프로그램'과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이 대중적으로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폭넓고 느슨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한국에 다시 이주노동을 하고자 하는 귀환자들을 보면서 바람직한 귀

환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또한 귀환프로그램이 한국의 지역별 센터별로 경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현지 귀환자들이 정보를 독점하거나, 권력화되고, 심지어는 한국입국 브로커역할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누리와 야디는 인도네시아에서의 프로그램 진행 내내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름도 얼굴도 모르는!)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한국 엔지오들이 방문해서 그들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가족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성 전화였다고 합니다. 귀환자 스스로의 의지도 의지지만, 주변으로부터의 유혹과 시달림도 만만치 않은 듯합니다.

- 필리핀에서 귀환자들과의 만남 후 "귀환자들의 삶을 보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마크의 말은 새겨들을 만 하다고 봅니다. 직접 여러 가정을 방문해 보고 얘기를 나눠 보는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 대사관과의 간담회

- 대사관이 우리 같은 엔지오들을 만나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면담을 요구하고 당연히 만나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가끔씩은 지레 안 될꺼야 생각하는데 최미경 선생님의 각고의 노력으로 결국 성사가 되어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 대사관에 이야기한 것은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노동권침해 행태에 대해 시정노력을 해줄 것, △고용허가제 진행상황과 송출비리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할 것으로 크게 나뉘어졌습니다. 한국기업의 행태에 대한 우리 측 얘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사관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러한 만남의 자리가 더욱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한국기업문제와 외국인력 송출비리 문제에 대해 대사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후에도 지속적인 우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야디와 누리와의 만남

- 야디와 누리와의 만남을 통해 귀환한 이주노동자들이 현지 활동가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고, 한 가지는 기존의 단체에 '한국데스크'를 만드는 방식으로, 다른 하나는 독자적으로 단체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존 엔지오에 합류해서 한국의 이주노동파트를 맡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귀국전 교육이나 정보제공, 송출과정 모니터링, 귀환프로그램 운영 등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엔지오와 한국의 인도네시아 공동체와 네트워킹을 만들어 상시적인 정보교류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연대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차미경 선생님 주선으로 야디가 가와산과 수라바야 지역에서 해외한국기업 조사사업을 하게 된 것은 귀환프로그램을 비롯한 엔지오 활동에 대해 막막하던 야디에게 좋은 경험이자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야디와 누리를 만난 것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들이기도 하니까요. 특히 귀국 후 야디의 활동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는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야디에게 여러 가능성과 기회들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 한 참가자들의 관심과 애정이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만큼 시행착오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보름이상을 함께 지내면서 각각들의 생각들을 공유하고 토론했던 게 좋았습니다. 함께 한 사람들이 너무 좋아 힘이 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참가 명단

·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외국인노동자상담소(1명)
모경순 - 인도네시아, 필리핀 참가

·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2명)
김민정 - 인도네시아. 필리핀 참가
정귀순 - 필리핀 참가

· 아시아다국적기업감시 네트웍(1명)
차미경 - 인도네시아, 필리핀 참가

· 아시아의친구들(3명)
차미경, 정국희, 이귀보 - 인도네시아, 필리핀 참가

· 안양 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위홈(2명)
김민정 - 인도네시아 참가
이영아 - 필리핀 참가

· 양산 외국인노동자의 집(1명)
이지연 - 필리핀 현지에서 합류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2명)
최미경, 이상아 - 인도네시아, 필리핀 참가

· 천주교 전주교구 노동사목 노동자의 집(1명)
임성희 - 필리핀 현지에서 합류

Gumi Catholic Workers' Center

□ Gumi Catholic Workers' Center

Gumi Catholic Workers' Center is a social welfare institute which is run by the Benedictine monastery in Waegwan near Gumi, the institute was established in 1973 and was especially working for the welfare and the promotion of female workers' rights.

We run a counseling service for female workers and we offer a re-employment training program and have different other activities related for the welfare female workers. During the period of the rapid growth in the 1980s, we made efforts to organize trade union which struggled to solve exploitation and unjust distribution.

Thanks to the progress of the Korean democracy movement, the workers' rights have improved and the interests is too a large degree fulfilled. But on the other hand the situation of migrant workers has been miserable.

Therefore the Gumi Catholic Workers' Center makes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of foreign workers, which have been infringed in Korea, and we try to integrate foreign workers in the Korean society from 1995.

To be mentioned are the following activities

□ Activities for human rights improvement

- Labor counselling : counselling service including all kinds of unfair labor treatment like unpaid salary, industrial accident, abuses at work.
- Special forms of counselling about departure from Korea without any fine, remittance of salary, international marriage and solving

their cultural conflicts and obtaining citizenship for the foreign partner, child birth, upbringing of infants

□ Medical care service

- Free physical check up , free dental clinic
- Supporting hospital fees, taking care of patients

□ Education

- Korean language classes
- computer classes
- Many kinds of seminars and training leaders
- Education on labour laws
- Reintegration program

□ Campaigns & Rallies

We hold campaigns and rallies, which include migrant workers, for righteous migrant worker policy and improvement of migrant workers' rights.

□ Cultural Events

- summer and winter camps
- spring and fall picnics
- Asian Festival
- Sport festival

These kinds of events help migrant workers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and history, while at the same time enjoying their own cultures by singing and dancing throughout them.

□ Support for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We assist foreign spouses married to Koreans regarding violation and swindle. At present, we provide foreign spouses with Korean and English classes, and a cultural understanding program for better

communication between couples. We also provide support for international couples' children by helping them fit into Korean society.

Contact :

✪ Address :
San 24-1, Wonpyung-Dong, Gumi City, Gyungbuk Province, Korea
(zip code : 730-010)
✪Tel : 82-54-452-2314
Fax : 82-54-452-6929
E-mail : kc2314@chollian.net
Webpage : http://www.kcwc.net

Program Participants:

- ✪ President : Father Wottawha(German)
- ✪ Secretary General : Mo, Kyoung Soon

Association For Foreign Workers Human Rights in Pusan

■ FWR

The Association for Foreign Workers' Human Rights in Pusan (FWR) aim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in Pusan and South Kyeongsang Province in Korea, build friendships between Koreans and migrant workers through cooperation, and to contribute to a humanitarian society, both in Korean and around the world.

Since October 1996, FWR has endeavoured to solve the problems migrant workers have been facing and to improve systematic conditions for them.

FWR aims to abolish discrimination regarding nationality, race ; to recognize and respect individual differences; to respect minorities' human rights; to live harmoniously within a multicultural society; to create a society for achiev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roughout Asia.

■ FWR Membership

- Staff members : 6 activists
- Supporting members : 260
- Volunteers : 137

■ FWR Activities

♣ Labour Counselling

FWR supports migrant workers by providing free labour counselling and legal assistance. Some of the most common problems encountered by migrant workers include: unpaid salary, industrial accidents and compensation, workplace abuse, being held 'prisoner' within the company when not working, and forced deposits. FWR solves migrant workers' problems through contacting employers directly, filing petitions at the Labour Office, or taking civil suits against employers to the courts.

♣ Publications

The Asian Workers News (AWN), an English newspaper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has been published every two weeks since March 15, 1997. AWN, the most popular form of news media with migrant workers in Korea, is distributed to about 115 migrant worker support centres and human rights groups, over 100 individuals nationwide, and 30 migrants centre throughout Asia. KOPI KOREA (Indonesian supplement of AWN), Tin Tuc Gong Nhan Chau A (Vietnamese supplement of AWN), and Ya Chou Gong Ren Xin Bao (Chinese supplement of AWN) are published monthly.

♣ Migrant worker Education

Seminars are occasionally held by experts or FWR staff members who explain and analyse the Korean Standard Labour Law, current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migrant worker policies and legal problems.

Previous seminars have included:

- Education on Korean Labour Law
- Education & Discussion on Migrant Worker Policy
- Leadership Training for Migrant Community Leaders
- Inquiry into Labour Unions and Civil and Social NGOs

♣ Free Medical Check-Ups

Every Sunday dental and general medical check-ups are conducted by volunteer doctors for free. Full medical examinations are conducted twice a year.

♣ Korean Language Classes / Computer Classes

Korean language classes and computer classes are held by Korean

volunteers every Sunday at the FWR office.

♣ Campaigns & Rallies

FWR holds campaigns and rallies, which include migrant workers, for righteous migrant worker policy and improvement of migrant workers' rights.

♣ Education for Koreans

To improve migrant worker policy and achieve their rights, it's important to FWR to change Korean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working toward this, FWR holds education programs for Korean citizens and students with themes such as, understanding minorities' rights and understanding other different cultures, and histories and societies within Asia. FWR also holds human rights camps, which involve our volunteers.

♣ Cultural Events

FWR conducts events such as tours to historical Korean sites, summer and winter camps, spring and fall picnics, sporting tournaments and the migrant worker cultural festival. These kinds of events help migrant workers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and history, while at the same time enjoying their own cultures by singing and dancing throughout them.

♣ Support for Cross-Cultural Families

FWR assists foreign spouses married to Koreans regarding violation and swindle. At present, FWR provides foreign spouses' with Korean and English classes, and a cultural understanding program for better communication between couples. FWR also provides support for international couples' children by helping them fit into Korean society.

♣ Reintegration Program

The reintegration program helps prevent repeated migration and long-term sojourns without a life plan. FWR hopes that, eventually, returned migrant workers live with their families in their hometowns and help change their countries into democratic and equitable societies, and fight for the prohibition of forced migration due to economic reasons.

■ Contact :

- Address : 4F Songkwang B/D, 193-9, Jeonpo-2 dong, Jin-gu, Busan City (zip code : 614-865)
- Tel : +82-51-802-3438
- Fax : +82-51-803-9630
- Webpage : http://fwr.jinbo.net
- E-mail : noja@kornet.net

■ Program Participants :

Jeong Gue-sun : FWR President
Kim Min-jung (Minda) : FWR Secretary General

Friends of Asia

Friends of Asia is a non-profit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based in Ilsan, Gyunggido in Korea. It was founded on June 2002 to serve for the general welfare of migrant workers in Goyang, Paju area, Korea. The FOA office started when a group of activists, who are living in the different countries and are working independently and collectively to fight against poverty, protect the children at the border, and to provide alternative education and skills for migrant workers have opened FOA's office.

◈ Korean Language Class

The FOA Korean Language Class for Migrant workers. Classes are held every Sunday from 2 to 4 PM at the office of FOA.
Migrant workers can enjoy learning the language and have cultural exchange among Koreans and migrants of different nationalities.

◈ Legal Counselling Service

FOA are doing legal counselling service for migrant workers who face difficulties at the work-place. It is about delayed salary, industrial disaster, medical insurance etc.

◈ Peace Room

The Friends of Asia, the Hankyoreh Shinmunsa and the Committee for the Construction of Peace Museum are jointly opened of the first peace museum in Korea. With the fund raised through this year, the Hankyoreh and the Committee for Peace Museum are planning to construct the Peace Museum on a place that signifies the virtue of peace.
Peace Room in FOA have photo exhibition, display traditional cultural things from various countries. Local people, specially child can experience various culture.

◈ Second-hand shop 'Nanumkot'

Nanumkot -literally meaning "Flower of Share" in Korean. First, the Nanumkot should serve as the site where migrants and Korean citizens join together
on daily basis and produce their own ways of coexistence that are not disturbed by the boundaries of nationality, ethnicity, gender, and race. The Nanumkot, at the same time, should work as the medium for ideological shifts towards an environment-friendly ways of living.
Migrants in Korea are consumers as well as laborers.
Some of them may think environmental issues have nothing to do with their lives. While more people are becoming environment-concerned in Korea, we still find many migrants insensitive about the issue. The Nanumkot movements should henceforth aim to spread environment-friendly ideas, by assisting migrants getting closer to the practice of recycling and reusing.

◈ National Community

FOA support meeting for National Community by migrants. They share the information, help each other, get knowledge for life in Korea. They try to have cultural event with local society, have meeting regularly.

◈ Internship Program

People seeking to learn more about migrant worker issues, civil and democracy movements, globalization and alternative education in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can apply for the internship program at the Friends of Asia. Our internship program intends to provide students and graduates opportunity to experience Asian societies in transition through means of fieldwork, research and exposure programs in cooperation with universities. NGOs and religious groups both in Korea and overseas. The internship period

can be from two months to one year, with a possibility of extension for more than one year.

*** Contact us**

- Telephone No. : +81-31-921-7880~1

- Fax No. : +81-31-921-7880

- Homepage : www.foa2002.or.kr

- E-mail : foa2002@foa2002.or.kr

Migrant Workers' Center in An-yang

Migrant workers' Center does our best to respect human being and to protect human rights for the every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races. Moreover, we would offer every possible help and also would be a good friend when migrant workers need our help and they are in trouble in their work place or daily life. Our activities include that through adequate education we help migrant workers themselves insist their rights and try to make Korean people change their fixed idea toward migrant workers in a positive way.

1) Counseling related to

* Salary, Separation fee * Industrial Accident.
* How to change the working place. * E-9 Visa Extension.
* Trouble in communication with your boss or co-workers.
* Violation in working place.
* Sexual violation/harassment, Entry permission , Alcoholism, Issue on refugee
  Trouble in International Marriage.

2) Medical Activity

* We are offering the free medical examination service twice a month.
  (PM2~PM5, On the first and third Sunday of the month.)
  (Surgery, Internal Medicine, Obstetrics and Gynecology, Urology, Dermatology, Chinese Medicine)

-Anyang Hospital:613-9, Anyang 5dong, Manangu, Anyangsi
(☎ 031-467-9114)

* No insurance?

If you had E-9 Visa, you can ask your boss to arrange your insurance card or you could join the Medical Mutual-Aid Union. (In

this case, 5,000won for registration fee, 6,000won for monthly fee, 2 photographs and the copy of your passport will be required)

3) Educational Activity

* Korean Language Class (Period: March~June)
* Computer Skill (Period: March~June)
* English Conversation (The 1st semester :Mar~Jun, The 2nd semester: Aug~Dec)
* Education on Labor Law(Concerning Labor's right)
* Education on the way to cope with sexual violences.
* Community Leadership Program.
* Education on the policy about migrant workers of the government.

4) Any support for Foreign worker's community.

* Administrative and executive supports for community activity.
* Any advice or information on organizing and managing the community.

5) Various Event for Migrant Workers.

* Sports Festival. * Summer Camp (July) * Festival (May)
* Visiting to Traditional Korean Tourist Attractions.
* National party for Migrant workers.
* New year party.for Migrant workers

6) Support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every month)
* Campaign for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system about the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7) Program for the home-coming migrant workers.

* Process the program for the migrant workers to settle down well in their countries through the connection with them.

8) International cooperation.

* With Human Right Solidarity for Woman & Migrants in Korea,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Ganagawa City Union, Tokyo Community Union, Osaka Human Right Commission in Japan, Germany Agigra, UNFER and Anyang Citizens' Group.

9) Research activities.

* Continue the research project for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announce it.
* Study of the woman migrants and express it.

10) Activity for the improvement of the government system for the migrant workers.

* Activity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nd suggestion of the policy.

11) please don't hesitate to ask for help

* We can provide you with legal and medical consultations, safe shelters, and assistance for your return home. All matters are kept strictly confidential.

For your reference our phone number and working shift are as follows.

Phone Number) 031-443-2876 (An-yang), 031-477-7742 (Kun-po)
Working Hours) AM 9 ~ PM 6 (Tuesday through Sunday)

We are not working on Monday.

WEHOME – The Women Migrant's Home

WEHOME supports and organizes activities to protect women migrant human rights in Korea. WEHOME helps migrant women (industry labor, the victim of sex trafficking,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etc.) to get more safe situation and to assure their rights to be protected in the legal system in Korea. WEHOME tries to focus on the migrant's families issues and helps their children to grow up in a better environment in Korea.

Activities of WEHOME

- ◈ Organizing forums for the protection of women migrant human rights.
- ◈ Activating a hotline center for women's human rights violation.
- ◈ Running a shelter for the victims of violence based on gender discrimination.
- ◈ Arranging debates with relevant governmental administrations to get legal system for women migrants in Korea.
- ◈ Gathering facts and publishing case studies.
- ◈ Developing education manuals and special programs for migrants women.
- ◈ Organizing special supporting groups.
- ◈ International solidarity.

Contact
676-136, Anyang4dong Kyunggi, Korea, Po. 430-832
Tel. 82-31-466-2876, Fax 82-31-446-2876.

President - Keum Yeon Lee. e-mail : afi21@hanmail.net
Coordinator - Min Jeong Kim. e-mail : aragina@hanmail.net

Yangsan Foreign Workers' House

ESTABLISHMENT : February 19 1997

PURPOSE OF ESTABLISHMENT :

- ◆ More than ten thousand foreigners of all nationalities work in the Yangsan, Kimhae and Eonyang area. They are often at the mercy of employers who exploit them, forcing them to carry out duties that are often dangerous and lowly paid and have little regard for human rights. Because of Language difficulties, foreign workers cannot communicate with their employers or the authorities. They often have no redress in situations where they are being exploited and they are left feeling helpless and frustrated.

- ◆ The purpose of the Yangsan Foreign Workers House (YFWH) is to provide a welcoming environment where Korean and foreign people of all nationalities can work closely together to ensure that the foreign workers' experience in Korea is a rewarding and positive one.

- ◆ YFWH does this by providing counselling for workers to help solve problems, and advocacy services with employers and authorities to ensure that working conditions are satisfactory and human rights are fully protected.

- ◆ YFWH provides ongoing support to workers; up to date information, and networking support for nationality and gender groups.

◆ Language education and skills training is provided to enable foreign workers to solve their own future workplace problems. Furthermore, camps, festivals, tournaments and social events are held to foster harmony amongst all the peoples of the world.

MANAGEMENT STRUCTURE

Located in Central Yangsan the YFWH is staffed by a manager and four permanent staff members. Their services and activities are supported by a wide variety of sponsors and a host of volunteers.

SERVICES AND ACTIVITIES

◆ **Counselling and Advocacy :** For those experiencing problems due to salary delays, unstable and ever-changing working conditions, breaches of human rights, industrial accidents, injuries and violence in the workplace.

◆ **Education:** Korean Language, Computer, Tae Kwon Do/Karate Classes.

◆ **Health Care:** Free weekly medical consultations and care. Access to alternative therapies including acupuncture, reflexology and massage.

◆ **Networking :** Networking activities and opportunities for nationality groups.

◆ **Women's Group :** Facilities and opportunities for women of different nationality groups to discuss mutual issues and interests.

◆ **Information Centre :** Access to computer, internet and e-mail services.

◆ **Seasonal Activities :**

v Annual Children's Day festival
v Human Rights Seminars
v Korean Culture and Customs Camp
v Annual Sport tournament
v Volunteers' Camp
v Social Events

PUBLISHED MATERIAL

◆ **Person to Person :** Bi-Monthly newsletter containing news, information and views.

◆ **Yangsan Foreign Workers' Survey :** Published 2001.

◆ **Workers' Guide Book :** Published 2002

ADDRESS

Hang-Hap Un-Dong-Jang 167
Buk Bu 533
Yangsan, Gyeongnam
South Korea 626-030

Telephone : +82 55 388 0988
Facsimile : +82 55 366 0988

E-mail : yfwh00@hanmail.net
Chat-line : http://cafe.daum.net/ysfw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What is KHIS?

Inheriting the legacy of the people's struggle for democracy in Korea,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is a non-profit membership organization for peace and human rights.

KHIS has been carrying out action campaigns, educational programs and research since 1994.

We work with NGOs, student groups and trade unions, both in Korea and abroad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under the ongoing process of economic globalization.

In order to take action on regional and global issues, KHIS serves as a link for cooperative efforts between Korean NGOs, civic group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international solidarity with other groups we work to develop a global people-oriented agenda rather than a global finance-based one.

TNCs Monitoring Project

■ To survey and monitor the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abroad

■ Field research to monitor the conduct of Korean Companies Abroad to promote workers rights overseas and Transnational Company (TNC) Codes of Conduct

■ To provide documents and informational materials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groups on TNC activities

■ To provide support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people who have suffered from unfair TNC employment practices and TNC-related environmental damage

■ To act as a watchdog organization to encourage companies to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3. Educational Programs

- Peace and Human Rights Tour : Asia

Tour Programs for Koreans to travel abroad and learn about the past and present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untries visited

- Good Neighbors Campaign Asia

Campaign to inform the public on labor and human rights problems of TNCs with operations located in Asia

- Educational Outreach

workshops and activities to disseminate information on current social issues to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Topics covered in the past : TNCs abroad, Massacres by Korean soldiers in Vietnam, NGOs in Korea

4. International Campaigns

Vietnam Campaign

During the Vietnam War, Korean troops were employed as mercenaries by the U.S.

There were many civilians massacred by Korean troops in Vietnam.

KHIS, along with other civic groups is working to make the public aware of this tragic history and has asked the Korean government to make an official apology for the massacres.

To this end we also held a concert for peace, "Saigon : Song of That Day". Funds raised from concert went toward the construction of a Peace Memorial Museum in Vietnam, dedicated to the civilian victims.

Address :
2nd Fl. 32 Wonseodong
Jongrogu Seoul, (Zip:110-280), Korea

Tel : 82-2-3675-5808~9 Fax : 82-2-3673-5627
Email : khis21@empal.com website : www.khis.or.kr

The Gospel Preaching Activities For The Migrant Worker

○ **The mass**

◦ Iksan district : every Sunday. 19:30 PM. Youngdeung-dong cahtolic church

◦ Jeonju district : every 2nd 4th Sunday. 14:00 PM. Jeonju catholic center

○ **Free medical care**

◦ Oriental and western : case by case

◦ Dental care : every 2nd and 4th Saterday at the Jeonbuk University hospistal

○ **The equal right improvement activity in the labor union for the migrant worker**

Some improvement activities result to the fields of employment system and labor conditions

○ **Labor education for the migrant workers**

Labor educations for the migrant workers have been carrying on the base with labor missionary policy of the Jeonju catholic center

○ **Offering of rest place to the migrant workers**

Three rest places for foreign workers are operating by Jeonju catholic center

○ **The foreign believers living in Jeonju area by the international marriage have been introduced to the local catholic church by the neighbor volunteers**

○ **The Korean language(Hangeul) classroom**

◦ Iksan distric : every Sunday. 18:30 PM. Iksan Youngdeung-dong chtholic church

◦ Jeonju distric : every Monday and Thursday
(IN the morning-elementary class, in the afternoon-advanced class)

○ **Other activities**

◦ Field trips : average twice every year

◦ Group participations : the Great Masses, country folk festivals etc

○ **The exclusive priest : Park Dong-Jin, Bernardo**
(Mobile 016-440-9576)

Address

○ **Iksan Saint Josep labor worker house**
Iksan-si, Changin-dong 1ga, Changindong catholic church
☏ 063-852-6949 e-mail : maumdamgi@hanmail.net

○ **Kunsan Saint Josep labor worker house**
Kunsan-si, Oryong-dong, 856-1, Oryongdong catholic church
☏ 063-465-5715 e-mail : antiu@hanmail.net

활동 사진

<인도네시아>

사진 1. 인도네시아에서 첫날 숙소인 엔지오 LIPS(립스) 사무실. 자카르타 공항에서 차로 1시간정도 걸리는 보고르 지역에 있다.

사진 2. 스마랑 엔지오 YAWAS(야와스) 사무실 앞에서 잠시

사진 3. 인도네시아 활동가·여성노동자들과 함께한 워크숍

사진 4. 연대의 밤

사진 5. 흥겹고 즐거웠던 연대의 밤

사진 6. 인도네시아 밴드가 불렀던 노래가 듣고 싶다.

사진 7.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한 워크숍

사진 8. 인도네시아어를 하시는 김민정 (왼쪽)

사진 9. 모경순 (가운데)과 통역을 하는 야디(오른쪽)

사진 10. 워크숍이 끝나고 한 컷

사진 11. 인도네시아 엔지오와 한국기업 노동자들과 진행한 오픈 포럼

사진 12. 오픈 포럼이 끝나고 한 컷. 밖은 어느새 어두워졌다.

사진 13.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들어가며

사진 14. 대사관 백두옥 산업자원관과 면담

사진 15. 한국 측이 선물로 준 티셔츠를 입고 있는 LIPS의 파흐잔(Fahzan)은 오픈 포럼 준비와 진행을 했다.

<필리핀>

사진 16. 필리핀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WAC의 지프니. 공항에 세실이 마중 나왔고 까비떼로 이동하는 중에 차 고장으로 2시간 정도 길에서 보냈다.

사진 17. 지프니 안

사진 18. 까비떼 수출자유지역공단. 철망가시 넘어 CAVITE EXPORT PROCESSING ZONE 이라는 표시가 보인다.

사진 19. 골프노조회의 참관. 농지가 골프코스로 바뀌었고, 농부들도 Golf Maintenance로 바뀌었다. WAC에서는 이들의 노조결성을 지원했다.

사진 20. WAC 지부

사진 21. WAC지부에서 필리핀 노동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관련 다큐멘터리도 보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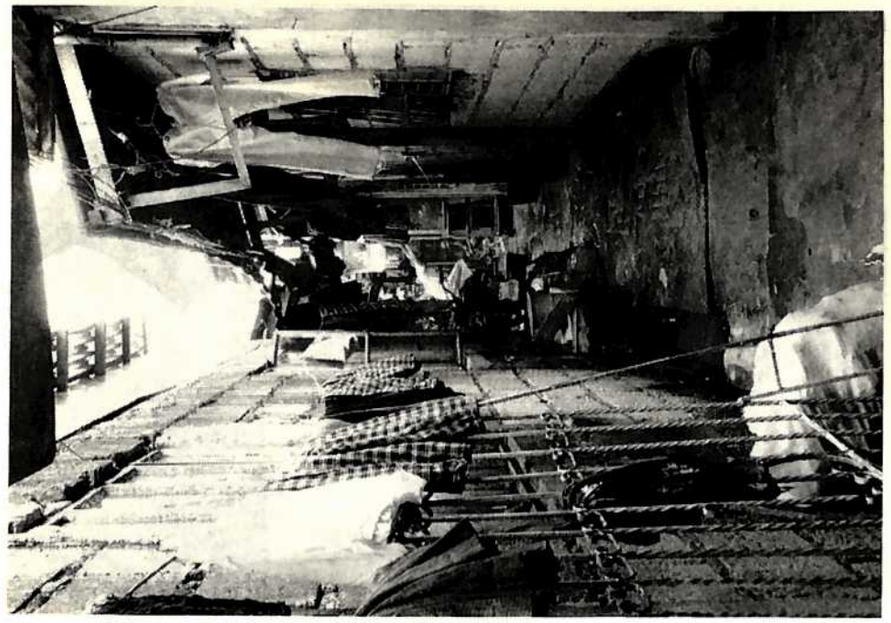

사진 22.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와 까비떼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주거지

사진 23. 노동자 주거지에서 만난 어린이들

사진 24. 필리핀 일정에 대하여 논의 중. WAC 건물은 사무실 겸 숙소이다. 2층 숙소 바깥의 넓은 베란다를 회의장으로 만들었다.

사진 25. 한국노동운동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정귀순

사진 26. 워크숍이 끝나고 WAC 마당에 모여서 한 컷

사진 27. 마닐라 바얀(BAYAN) 회의실에서 귀환이주노동자들과 간담회. 서 있는 사람은 마닐라 일정준비와 통역을 한 마크.

사진 28. 필리핀 해외취업관리청. 미그란떼 인터내셔널(Migrante International)과 rally를 했다.

사진 29. 미그란떼 인터내셔널 사무실에서 가진 필리핀 엔지오들과 연대의 밤.

<해외협력단체 연락처>

◎ Asia Monitor Resource Center (AMRC, 홍콩)
Unit 4, 18 Floor, Hollywood Centre,
233 Hollywood Road, Sheung Wan, Hong Kong
Tel : (852) 2332-1346 Fax : (852) 2385-5319
E-mail : admin@amrc.org.hk www.amrc.org.hk

◎ 아시아 다국적기업감시 네트웍 (간사단체 : AMRC)
Asi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Monitor Network
http://atnc.info

◎ LIPS (립스, 인도네시아 보고르)
Lembaga Informasi Perburuhan Sedane
[Sedane Trade Unions Information Center]
Tel+Fax : 62 251 344473
E-mail : lips@lips.or.id www.lips.or.id

◎ YAWAS (야와스, 인도네시아 스마랑)
E-mail : y_yawas@yahoo.com

◎ Workers' Assistance Center, Inc. (WAC 왁, 필리핀 까비떼)
Indian Mango St., Manggahan
Cpd., Sapa I, 4106 Rosario,
Cavite, Philippines
Tel : (+63 46) 884-0076 Fax : (+63 46) 438-4736
E-mail : wacl@pacific.net.ph

◎ Solidarity of Cavite Workers (SCW 필리핀 까비떼)
주소 및 연락처 : 위 WAC와 같음